

# 청년기 발달과업 성취가 청소년의 5요인 성격특성과 자기존중감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한국 고등학교 남녀 청소년 515명(남: 245명, 여: 270명)을 대상으로 발달과업의 성취가 청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Havighurst의 청년기 발달과업을 수정하고 확장한 17개의 발달과업들이 사용되었고, 이 과업들이 어느 정도로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성취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동시에 발달과업의 성취수준에 따라 청소년들의 5요인 성격특성과 자기존중감 및 행복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17개 발달과업 중 6개의 과업에서는 이미 이루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나 8개의 과업은 '이제 막 시작했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3개의 과업은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아 고등학교 시기는 전형적인 청년기 발달과업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시기임을 보여 주었다. 또한 4개의 과업에서 유의한 성취가 나타나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더 성숙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발달과업 성취수준 상집단은 하집단보다 더 높은 외향성과 호감성,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및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더 큰 행복을 경험하여 발달과업의 성취는 곧 성공적 적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주요어: 발달과업, 5요인 성격특성, 자기존중감, 행복

각 개인은 전생애를 사는 동안 어느 단계에서나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일찍이 Havighurst(1972)는 인간발달은 단계를 통한 이동의 과정으로 각 단계는 해결해야 할 그 자체의 과업을 갖는다고 제안하고 그것을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므로 발달과업이란 각 발달단계마다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을 의미하므로 그것은 성공적 적응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의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청년기 동안 어떤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하는가? 청년기는 급격한 생물학적,

---

\* 교신저자: 장휘숙, E-mail: hsjang@cnu.ac.kr

인지적 그리고 사회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인 동시에 다양한 역할이동을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 특유의 발달과업을 갖는다. Havighurst (1972)는 청년기 동안 각 개인은 자신의 신체를 수용하기, 남성적 혹은 여성적 역할을 채택하기,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기, 동성 및 이성의 또래들과 친밀한 관계를 발달시키기, 유능한 시민으로서 지적기능과 개념을 획득하기, 결혼과 가족생활을 준비하기, 직업생활을 준비하기, 개인적 가치 혹은 윤리체계를 확립하기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성취하기 등의 9가지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어느 사회에서나 각 연령단계의 발달과업은 명백하게 공식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연령단계에서 그 사회가 중요시하는 발달목표와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사한 견해를 갖는다. 그 증거로서 전생애 발달을 8단계로 구분한 Erikson(1968)은 청년기를 정체감 대 역할혼란의 시기로 규정하고 정체감 탐색을 청년기의 핵심적 발달과업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Nurmi(1989, 1991)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미래목표에 관해 질문 받았을 때 대부분이 미래의 교육과 직업, 가족 그리고 미래의 삶에서의 물질적 측면같은 발달과업들을 가장 빈번하게 언급한다고 보고하여 전생애 발달의 문화적 원형(cultural prototype)이 존재함을 시사하였다. 실제로 전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은 학교를 끝마치면 그 다음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결혼하며, 마지막으로 이후의 삶을 위한 물질적 기초를 확립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공통성을 갖는다.

문제는 Havighurst 시대에는 청년기가 12세부터 18세까지의 짧은 기간에 해당하는 시기였으나 최근 청년기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우리 시대의 아동은 과거와 비교하여 신

체적으로 더 일찍 성숙하기는 하지만, 더 늦게 집을 떠나고 직업도 더 늦게 갖는다면 결혼과 부모역할을 더 늦게 시작하므로 청년기 발달과업의 성취시기는 매우 모호해졌다. 그 결과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이 청년기 발달과업을 성취하기에는 미성숙하다고 느끼거나 가짜로 성숙했다고 생각하기까지 하므로(Galambos, Barker, & Tilton-Weaver, 2003; Galambos, Turner, & Tilton-Weaver, 2005), 우리 사회 청소년들의 발달과업 성취도 더 늦게 시작되고 더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다. 성인초기의 발달과업을 연구한 여러 연구자들(장휘숙, 2008; Arnett, 2000; Schulenberg, Bryant & O'Malley, 2004; Youniss & Yates, 1997)도 성인초기의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시기가 과거와 비교하여 더 늦어졌음을 보고하고 있어 청년기 발달과업의 성취기간이 더 길어졌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청년중기에 해당하는 한국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Havighurst의 청년기 발달과업을 어느 정도로 성취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만약 청년기가 더 길어지고 있다면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들을 이미 성취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더욱이 청년기와 성인초기 모두에서 여성들의 발달과업 성취가 남성들의 성취를 앞선다는 보고(Heckhausen, 2000; Seiffge-Krenke, 1998)가 있으므로 청년기 발달과업 성취에서 성차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려고 한다.

흥미롭게도 동일 연령에서도 특정한 발달과업을 이미 성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시작하지도 못한 사람도 있다. 인지적 성격발달(cognitive personality development) 모형을 제안한 Nurmi(1993)는 발달과업을 이미 성취한 사람들은 발달과업이라는 맥락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사람들인 반면, 아직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대처하지 못하거나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제

안하고 발달과업의 성취는 개인의 성격특성이나 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 모형에 의하면, 연령으로 구분되는 전생애 동안의 발달과업이나 역할이동, 발달표준 혹은 연령에 적절한 행동규준 등은 모두 인간발달을 위한 사회문화적 맥락으로서 청년기 발달과업 역시 청소년들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맥락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맥락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하여(각 발달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의 동기나 가치 혹은 욕구를 기초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며 전략을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며 관련된 행동에 점차적으로 전념하여 발달과업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그것의 성취여부를 평가함으로써 개인의 특징적인 성격특성이나 정체감 발달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Nurmi의 모형은 발달과업의 성취가 개인의 성격특성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므로 발달과업 성취의 빠르고 느림에 따라 청소년들의 5요인 성격특성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발달과업의 성취여부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또한 전체적인 자기개념이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Nurmi(1993)의 가정대로, Silbereisen과 Noack(1990)은 친밀성의 발달과업과 관련된 성취는 자기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고, Harter(1990)는 학업능력 및 사회적 수용과 관련된 발달과업은 능력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에 영향을 줌으로써 발달과업의 성공적 성취는 높은 자기존중감을 경험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발달과업의 성공적 성취가 자기존중감은 물론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은 많이 있다. 우선 Havighurst(1972)도 특정한 단계의 발달과업이 성취되면 이후 단계의 발달과업의 성취는 물론

행복을 경험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다음 단계의 발달과업 성취는 지장을 받게 되고 개인은 불행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는가 하면, 13세부터 23세까지의 6개의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Seiffge-Krenke와 Gelhaar(2007)은 발달과업의 성공적 성취는 행복의 중요한 지표인 높은 자기존중감과 낮은 병적 징후들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장휘숙(2009)과 Schulenberg와 Bryant 및 O'Mally(2004)는 성인초기 성인들의 표본에서 발달과업의 성공적 해결은 높은 수준의 안녕이나 행복, 생활만족 및 자기존중감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독일에서 수행된 두 개의 종단연구(Brunstein, Schultheiss & Maier, 1999; Piquart, Silbereisen, & Wiesner, 2004)도 발달과업의 낮은 성취는 더 낮은 자기존중감과 연합되어 있다고 밝혀 발달과업의 성취는 자기존중감이나 행복과 높은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의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자기존중감 및 행복의 관계도 확인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 규명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고등학교 남녀 청소년들은 Havighurst의 청년기 발달과업을 어느 정도로 성취했으며, 성취수준에서 성차가 있는가?
2. 청년기 발달과업 성취수준에 따라 성격특성에서 차이가 있는가?
3. 청년기 발달과업 성취수준에 따라 자기존중감과 행복에서 차이가 있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인문계 고등학교 남녀 학생들이 연구대상자로 표집되었다. 발달과업의 성취여부는 정체감 탐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학생들이 많은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표집 초기부터 연구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표집된 학생들 중 설문에 대한 응답을 누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15명(남: 245명, 여: 270명)의 학생들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남학생 16.53세( $SD=.998$ ) 그리고 여학생 16.59세( $SD=.105$ )였다. 자료는 2009년 4월초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수집되었고, 설문은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담임 교사에 의해 집단으로 실시되었다.

## 측정도구

### 발달과업 질문지

Havighurst(1972)는 9개의 청년기 발달과업을 제안하였으나 하나의 발달과업 속에 두가지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예: 동성 및 이성의 또래들과 친밀한 관계를 발달시키기)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표현된 발달과업들(예: 유능한 시민으로서 지적 기능과 개념을 획득하기)을 포함하고 있어 표 1과 같이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분리하거나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다. 동시에 Nurmi(1989, 1991)도 제안한 것처럼, 가족관련 과업으로 한국문화에서 중요시하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자매와 잘 지내는 것을 첨가하여 17개의 발달과업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발달과업 성취 수준은 17개 발달과업에 대해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1점), '막 시작했다'(2점), 그리고 '이미 이루었다'(3점)의 3점 척도를 구성하여 측정되었다.

## 성격척도

청소년들의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baranelli와 Caprara, Rabasca 및 Pastorelli(2003)가 개발한 65문항의 아동용 5요인 성격질문지(Big Five Questionnaire for Children: BFQ-C)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BFQ-C 문항을 번역하고 그것을 한국어를 잘 아는 미국인이 역번역하고 다시 재번역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문항을 구성하였다. 8세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용으로 제작된 이 척도는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5가지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각 하위척도는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형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5가지 성격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로 계산한 각 하위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외향성 .841, 호감성 .898, 성실성 .803, 정서적 불안정성 .827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 .866이었다.

## 자기존중감 척도

전체적 자기존중감을 측정하는 Rosenberg(1965)의 자기존중감 검사가 사용되었다. 이 검사는 10개의 문항을 포함하며(문항 예: 나는 나 자신에 만족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로 계산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84였다.

## 행복 척도

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적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표 1. 청년기 발달과업

Havighurst의 발달과업	이 연구의 발달과업
1. 자기의 체격을 인정하고 자신의 성역할을 수용한다.	1. 나의 모습(신체, 외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2.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의 내 역할에 만족한다.
2. 동성이나 이성의 친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3. 새로운 동성친구를 사귈다. 4. 여성과 사귀기 시작한다. 5. 또래집단의 구성원이 된다.
3. 부모와 다른 성인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한다.	6. 부모나 다른 성인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4.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느낀다.	7.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8.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고 준비한다.
5.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한다.	16.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노력한다.
6. 유능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적 기능과 개념을 획득한다.	12.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13.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립한다(금주, 금연, 운동하기).
7.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원하고 이를 실천한다.	9.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노력한다. 11. 위험한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결혼과 가정생활을 준비한다.	17. 미래의 결혼생활을 생각하면서 그 준비를 한다.
9. 적절한 과학적 세계관에 맞추어 가치체계를 형성한다.	10. 정보화 사회에 적절한 생활태도를 형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14. 부모님께 효도한다. 15. 형제자매와 잘 지낸다.

여 Lyubomirsky와 Lepper(1999)가 개발한 행복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원래 4개의 문항을 포함하나 1개의 문항이 지나치게 낮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내어 3개의 문항(문항 예: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높은 주관적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  $\alpha$ 로 계산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828이었다.

## 결 과

### 1. Havighurst의 청년기 발달과업 성취정도

17개 발달과업 각각에 대해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막 시작했다' 그리고 '이미 이루었다'에 응답한 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면 표 2 및 그림 1-1에서 그림 1-17까지와 같다. 먼저 '이미 이루었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발달과업은 6개로서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의 내 역할에 만족한다'(그림 1-2참조), '새로운 동성친구를 사귈다'(그림 1-3참조), '또래집단의 구성원이 된다'(그림 1-5참조), '위험한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그림 1-11참조),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그림 1-12참조), 그리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립한다'(그림 1-13참조)로서 대부분 청년초기의 발달과업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또한 '이제 막 시작했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발달과업은 8개로서, '나의 모습을 있는

표 2. 남녀 청소년의 발달과업 성취정도의 빈도(백분율)와  $\chi^2$ 분석 결과

발달과업	남			여			$\chi^2$ 분석 결과
	아직 시작 못함	막 시작함	이미 이룸	아직 시작 못함	막 시작함	이미 이룸	
1. 나의 모습(신체 외모)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인다.	52 (21.3)	122 (49.8)	71 (28.9)	76 (28.1)	126 (46.7)	68 (25.2)	$\chi^2_{(2)}=3.424$
2.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의 내 역할에 만족한다.	34 (13.9)	97 (39.6)	114 (46.5)	55 (20.4)	101 (37.4)	114 (42.2)	$\chi^2_{(2)}=2.831$
3. 새로운 동성친구를 사귈다.	18 (7.3)	79 (32.2)	148 (60.5)	25 (9.3)	73 (27.0)	172 (63.7)	$\chi^2_{(2)}=1.967$
4. 이성과 사귀기 시작한다.	138 (56.3)	47 (19.2)	60 (24.5)	161 (59.6)	51 (18.9)	58 (21.5)	$\chi^2_{(2)}=7.755$
5. 또래집단의 구성원이 된다.	11 (4.5)	71 (29.0)	163 (66.5)	21 (7.8)	72 (26.7)	177 (66.6)	$\chi^2_{(2)}=2.501$
6. 부모나 다른 성인들의 도움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63 (25.7)	144 (58.8)	38 (15.5)	80 (29.6)	149 (55.2)	41 (15.2)	$\chi^2_{(2)}=1.009$
7.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 준비한다.	160 (65.3)	71 (29.0)	14 (5.7)	200 (74.1)	59 (21.8)	11 (4.1)	$\chi^2_{(2)}=4.710$
8.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고 준비한다.	66 (26.9)	122 (49.8)	57 (23.3)	75 (27.8)	161 (59.5)	34 (17.7)	$\chi^2_{(2)}=10.574$ **
9.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려고 노력한다.	25 (10.2)	140 (57.1)	80 (32.7)	36 (13.4)	174 (64.4)	60 (22.2)	$\chi^2_{(2)}=7.326$ *
10. 정보화 사회에 적절한 생활태도를 형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74 (30.2)	130 (53.1)	41 (16.7)	95 (35.2)	134 (49.6)	41 (15.2)	$\chi^2_{(2)}=1.460$
11. 위험한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43 (17.6)	21 (8.6)	181 (73.8)	48 (17.8)	17 (6.3)	205 (75.9)	$\chi^2_{(2)}=9.77$
12.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46 (18.8)	98 (40.0)	101 (41.2)	59 (21.8)	85 (31.5)	126 (46.7)	$\chi^2_{(2)}=4.082$
13.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립한다(금주, 금연, 운동하기).	41 (16.7)	65 (26.5)	139 (56.8)	49 (18.2)	84 (31.1)	137 (50.7)	$\chi^2_{(2)}=1.939$
14. 부모님께 효도한다.	69 (28.2)	121 (49.4)	55 (22.4)	104 (38.5)	111 (41.1)	55 (20.4)	$\chi^2_{(2)}=6.313$ *
15. 형제자매와 잘 지낸다.	50 (20.4)	110 (44.9)	85 (34.7)	50 (18.5)	108 (40.0)	112 (41.5)	$\chi^2_{(2)}=2.511$
16.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노력한다(자아탐색).	45 (18.4)	149 (60.8)	51 (20.8)	54 (20.0)	172 (63.7)	44 (16.3)	$\chi^2_{(2)}=1.773$
17. 미래의 결혼생활을 생각하면서 준비한다.	151 (61.6)	70 (28.6)	24 (9.8)	198 (73.3)	59 (21.9)	13 (4.8)	$\chi^2_{(2)}=9.346$ **

\* $p < .05$ , \*\* $p < .01$ , \*\*\* $p < .001$  이하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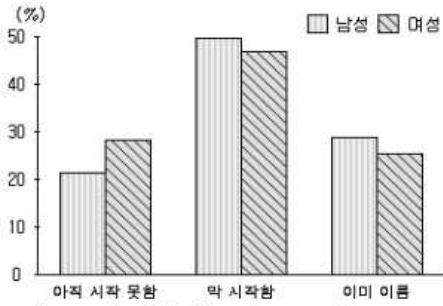


그림 1-1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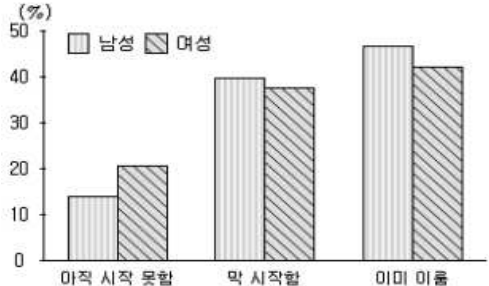


그림 1-2 남자로서, 여자로서 내 역할에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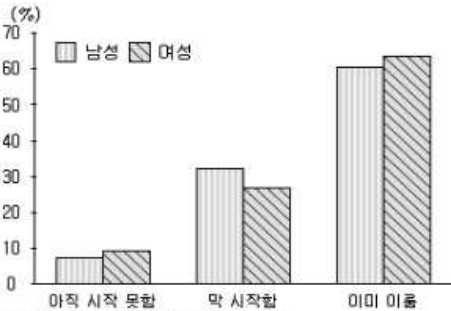


그림 1-3 새로운 동성친구를 사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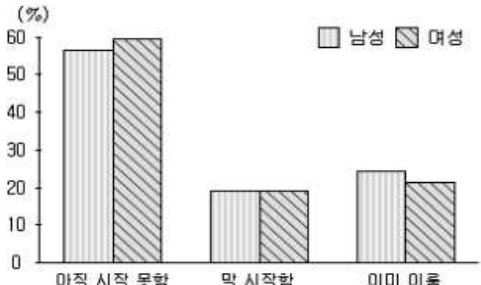


그림 1-4 여성과 사귀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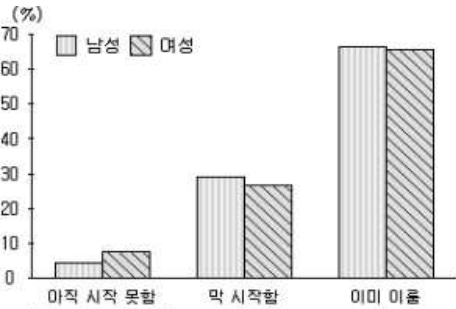


그림 1-5 노래집단의 구성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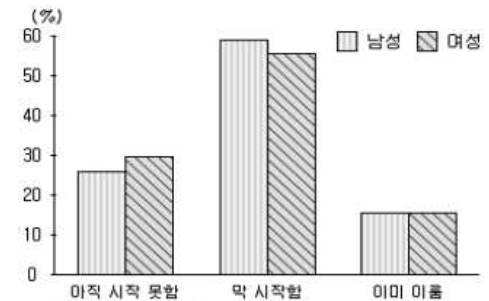


그림 1-6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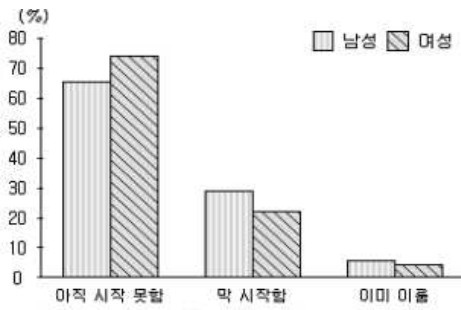


그림 1-7 경제적 독립을 위해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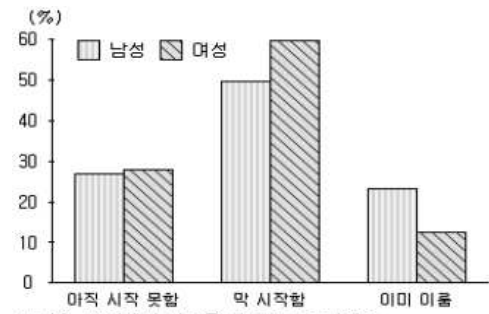


그림 1-8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고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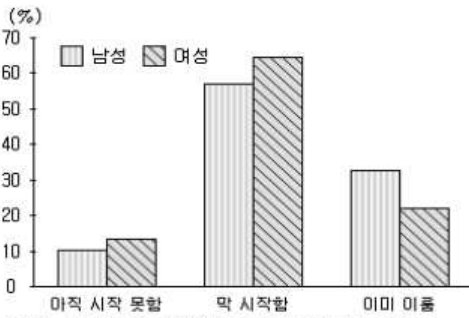


그림 1-9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려고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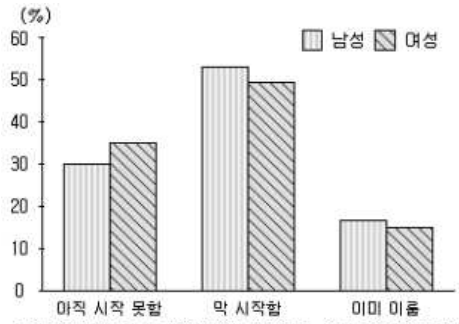


그림 1-10 정보화 사회에 적절한 생활태도, 지식, 기술을 습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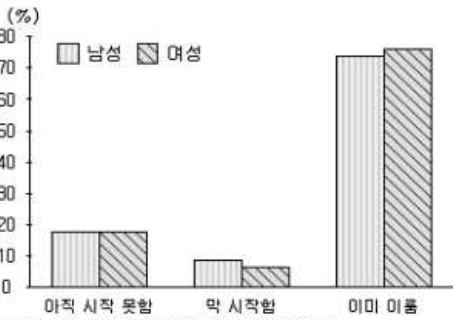


그림 1-11 위험한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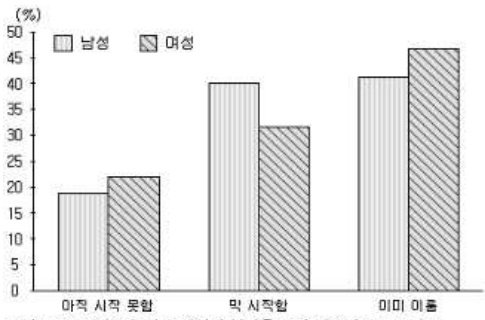


그림 1-12 규칙준수 및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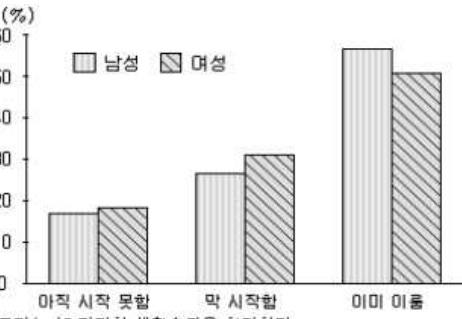


그림 1-13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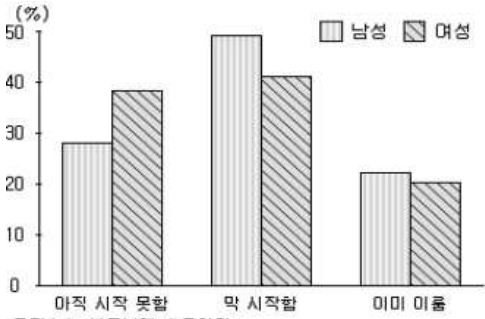


그림 1-14 부모님께 효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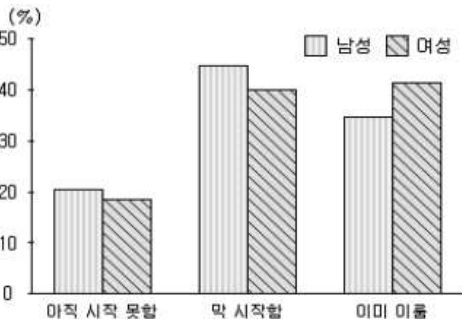


그림 1-15 형제자매와 잘 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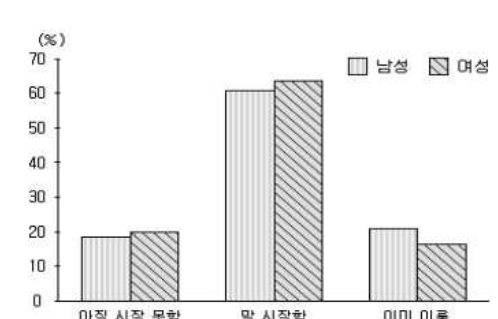


그림 1-16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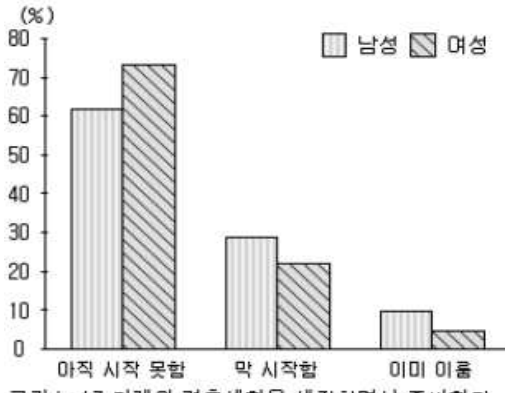


그림 1-17 미래의 결혼생활을 생각하면서 준비한다.

그대로 받아들인다(그림 1-1 참조), ‘부모나 다른 성인들의 도움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그림 1-6참조),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고 준비한다(그림 1-8 참조),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려고 노력한다(그림 1-9 참조), 정보화 사회에 적절한 생활태도를 형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그림 1-10 참조), ‘부모님께 효도한다(그림 1-14참조), ‘형제 자매와 잘 지낸다(그림 1-15참조),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노력한다(그림 1-16참조) 등으로 정체감 획득과 관련된 과업들을 다수 포함하였다. 대조적으로 3개의 발달과업 즉, ‘이성과 사귀기 시작한다(그림 1-4참조),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준비한다(그림 1-7참조), 그리고 ‘미래의 결혼생활을 생각하면서 그 준비를 한다(그림 1-17참조)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는 응답율이 가장 높은 과업들로서 모두 성인기 준비를 위한 핵심적 발달과업들이었다.

발달과업의 성취 정도에서의 성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chi^2$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4개의 발달과업 즉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고 준비한다( $\chi^2_{(2)}=10.574, p<.01$ ),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려고 노력한다( $\chi^2_{(2)}=7.326,$

$p<.05$ ), ‘부모님께 효도한다( $\chi^2_{(2)}=6.313, p<.05$ ), ‘미래의 결혼생활을 생각하면서 그 준비를 한다( $\chi^2_{(2)}=9.346, p<.01$ )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즉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과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려고 노력한다’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이미 이루었다’는 응답비율에서 더 높았고, ‘부모님께 효도한다’와 ‘미래의 결혼생활을 준비한다’에서는 ‘막 시작했다’와 ‘이미 이루었다’의 응답비율에서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더 높아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성인기 준비를 더 일찍 시작하거나 이미 이룬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요약하면 청년중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17개의 발달과업 중에서 6개의 과업에서 ‘이미 이루었다’는 비율이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나 ‘막 시작했다’는 비율보다 더 높았고 8개의 과업에서는 ‘이제 막 시작했다’는 비율이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혹은 ‘이미 이루었다’는 비율보다 더 높았으며 3개의 과업은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막 시작했다’나 ‘이미 이루었다’는 비율보다 더 높았다. 흥미롭게도 아직 시작하지 못한 비율이 가장 높은 3개의 발달과업은 모두 성인기 준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발달과업들이었다.

## 2. 발달과업 성취수준 상하집단에 따른 성격특성에서의 차이

발달과업 성취수준은 ‘막 시작했다’와 ‘이미 이루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성취수준 상집단으로 그리고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성취수준 하집단으로 구분되었다. 4개의 발달과업 성취수준에서 성차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발달과업 성취수준 상하집단에 따른 성격특성에서의 차

표 3. 성별과 발달과업 성취수준에 따른 5요인 성격특성의 평균(표준편차)

성별	발달과업 성취수준	N	M(SD)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남	상	163	3.62(.599)	3.43(.517)	3.30(.554)	2.63(.598)	3.28(.535)
	하	82	3.43(.589)	3.21(.507)	2.98(.408)	2.69(.555)	2.89(.486)
	전 체	245	3.55(.601)	3.36(.523)	3.19(.530)	2.65(.584)	3.15(.551)
여	상	153	3.63(.544)	3.49(.485)	3.19(.501)	2.75(.591)	3.09(.503)
	하	117	3.28(.539)	3.09(.410)	2.89(.484)	2.82(.638)	2.89(.478)
	전 체	270	3.48(.567)	3.31(.494)	3.06(.516)	2.78(.611)	3.00(.502)
전체	상	316	3.62(.572)	3.46(.502)	3.25(.530)	2.69(.597)	3.19(.527)
	하	199	3.34(.563)	3.14(.455)	2.93(.456)	2.77(.607)	2.89(.480)
	전 체	515	3.51(.584)	3.33(.508)	3.12(.526)	2.72(.601)	3.07(.530)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성별과 발달과업 성취수준 상하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5요인(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성격특성 각각에 대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성별과 발달과업 성취수준에 따른 5요인 성격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표 4는 그것을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표 4에 의하면, 외향성과 호감성에서 성별의 주효과와 성별과 성취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취수준의 주효과(외향성  $F(1,511)=25.713, p<.001$ ; 호감성  $F(1,511)=49.017, p<.001$ )가 유의하였다. 즉 발달과업을 막 시작하거나 이미 이룬 성취수준 상집

단의 청소년들이 아직 시작하지 못한 성취수준 하 집단의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외향성과 호감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성실성에서는 성별( $F(1,511)=4.692, p<.05$ )과 발달과업 성취수준( $F(1,511)=45.766, p<.001$ )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성별과 발달과업 성취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성실성을 지니고 발달과업의 성취를 위한 노력을 막 시작했거나 이미 이룬 청소년들이 아직 시작하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성실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표 4. 성별과 발달과업 성취수준에 따른 5요인 성격특성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5요인 성격특성	F값		
	성별	발달과업 성취수준	성별 x 발달과업 성취수준
외향성	1.742	25.713***	2.282
호감성	.499	49.017***	3.727
성실성	4.692*	45.766***	.002
정서적 불안정성	5.135*	1.344	.010
경험에 대한 개방성	4.161*	42.900***	4.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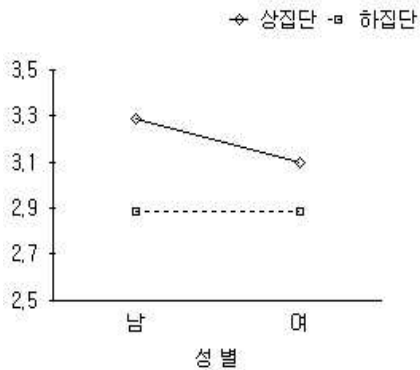


그림 2.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서 성별과 발달과업 성취수준의 상호작용효과

그러나 정서적 불안정성에서는 성별의 주효과 ( $F(1,511)=5.135, p<.05$ )만 유의하여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으나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서는 성별( $F(1,511)=4.161, p<.05$ )과 발달과업 성취수준( $F(1,511)=42.900, p<.001$ )의 주효과 및 성별과 발달과업 성취수준의 상호작용 효과 ( $F(1,511)=4.271, p<.05$ )가 모두 유의하였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 대한 성별과 발달과업 성취수준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제시한 결과에 의하면

(그림 2 참조), 발달과업 성취수준 상집단의 남녀 청소년들은 하집단의 남녀 청소년들보다 더 큰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니고 발달과업 성취수준 상집단의 남자 청소년들은 상집단의 여자 청소년들보다 더 큰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발달과업의 성취를 위한 노력을 막 시작했거나 이미 이룬 남녀 청소년들이 아직 시작하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더 큰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니고 발달과업을 막 시작했거나 이미 이룬 청소년들 중에서도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더 큰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 3. 발달과업 성취수준 상하집단에 따른 자기존중감과 행복에서의 차이

발달과업 성취수준에서의 유의한 성차를 고려하여 성별과 성취수준 상하집단에 따른 자기존중감과 행복에서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성별과 성취수준 상하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는 성별과 발달과업 성취수준에 따른 자기존중감과 행복의 평균과 표준편차

표 5. 성별과 발달과업 성취수준에 따른 자기존중감과 행복의 평균(표준편차)

성별	발달과업 성취수준	N	MSD)	
			자기존중감	행복
남성	상	163	29.06(4.24)	11.28(2.3)
	하	82	26.68(4.36)	10.23(2.16)
	전체	245	28.26(4.41)	10.93(2.3)
여성	상	153	29.1(3.95)	11.31(2.01)
	하	117	25.48(4.8)	9.81(2.37)
	전체	270	27.53(4.69)	10.66(2.29)
전체	상	316	29.08(4.09)	11.29(2.16)
	하	199	25.97(4.65)	9.98(2.29)
	전체	515	27.88(4.57)	10.79(2.30)

표 6. 성별과 발달과업 성취수준에 따른 자기존중감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Partial Eta <sup>2</sup>
성별	40.374	1	40.374	2.173	.004
발달과업 성취수준	1074.443	1	1074.443	57.836***	.102
성별 * 발달과업 성취수준	46.548	1	46.548	2.506	.005
오차	9492.985	511	18.577		
전체	10737.293	514			

표 7. 성별과 발달과업 성취수준에 따른 행복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Partial Eta <sup>2</sup>
성별	4.52	1	4.520	.925	.002
발달과업 성취수준	193.024	1	193.024	39.492***	.072
성별 * 발달과업 성취수준	6.084	1	6.084	1.245	.002
오차	2497.6	511	4.888		
전체	2714.505	514			

를 제시하고 표 6과 7은 그것을 이원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표 6에 의하면, 자기존중감에 대한 이원변량분석결과 성별의 주효과와 성별과 발달과업 성취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발달과업 성취수준의 주효과( $F(1,511)=57.836, p<.001$ )가 유의하였다. 즉 발달과업 성취수준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더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행복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에서도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발달과업 성취수준의 주효과( $F(1,511)=39.492, p<.001$ )만 유의하여 발달과업 성취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더 높은 행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발달과업 성취를 위한 노력을 막 시작했거나 이미 이룬 사람들이 아직 시작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더 큰 행복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 논 의

이 연구는 515명(남: 245명, 여: 270명)의 고등학교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Havighurst의 청년기 발달과업을 기초로 이 연구에서 확장된 17개의 발달과업들은 어느 정도로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성취정도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이와 함께 청년기 발달과업을 성취한 정도에 따라 청소년들을 상하집단으로 구분하고 청소년들의 성격특성과 자기존중감 및 행복에서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이미 이루었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발달과업은 6개이고 ‘이제 막 시작했다’의 비율이 이 가장 높은 발달과업은 8개 그리고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의 응답비율이 ‘막 시작했다’와 ‘이미 이루었다’의 응답비율보다 더 높은 발달과업은 3개여서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막 시작하거나 아직 시작하지 못한 발달과업들이 이미 이루었다는 발달과업보다 더 많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4개

의 과업 즉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고 준비한다'와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려고 노력한다', '부모님께 효도한다'와 '미래의 결혼생활을 생각하면서 그 준비를 한다'에서는 막 시작했거나 이미 이루었다고 응답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아 성인기 준비 차원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성숙함을 보여주었다. 발달과업 성취수준을 상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 발달과업 성취수준 상집단의 청소년들은 하집단의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외향성과 호감성,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니고 있었고, 더 높은 수준의 자기존중감과 행복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져 발달과업의 성공적 성취는 바람직한 성격 특성을 지니게 하고 개인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흥미롭게도 17개의 청년기 발달과업 중에서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세 개의 발달과업은 '이성과 사귀기 시작한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미래의 결혼생활을 생각하면서 준비한다'로서 모두 성인기 준비를 위한 핵심적 발달과업들이었다. 또한 '이제 막 시작했다'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발달과업도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의 자아탐색과 관련된 발달과업을 포함하고 있어 고등학교 시기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자아탐색과 관련한 전형적인 청년기 발달과업들의 성취가 이제 막 시작되고 성인기 준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발달과업의 성취는 아직 시작되지 못한 상태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Havighurst 시대와 비교하여 청년기가 길어진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과거와 비교하여 청년기 발달과업의 성취는 더 늦게 시작되고 더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성인기 진입을 위한 준비는 더 늦어지고 있다는 Galambos 등(2003, 2005)이나 Seiffge-Krenke와

Gelhaar(2007)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였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자유롭게 이성과 교체하고 많은 이성친구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성과 사귀기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비율이 50% 이상이였다. 오히려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립하고 위험한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며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의 내 역할에 만족하는 청소년들이 많아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매우 건전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남자 청소년들의 성취비율이 여자 청소년들의 성취비율보다 더 높은 발달과업들이 확인됨으로써 여자 청소년들의 발달이 남자 청소년들의 발달보다 더 빠르다는 Heckhausen(2000)이나 Seiffge-Krenke(1998)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Graber와 Brooks-Gunn 및 Petersen(1996)은 여자 청소년들의 성취비율이 더 높은 이유로 여성들의 신체발달이 더 빠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는가 하면 Gilligan(1996)은 여성들이 관계발달과 관련된 몇 가지 발달과업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제안하였으나,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두 가지 이유 모두 수용되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이 연구에 포함된 고등학교 남녀 청소년들은 성적 발달을 이미 이룬 상태에 있어 신체발달 자체가 발달과업 성취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관계발달과 관련된 과업들 즉 '새로운 동성친구를 사귀다', '이성과 사귀기 시작한다', 그리고 '또래집단의 구성원이 된다'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보다 미래의 직업과 결혼생활에 대한 준비에서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보다 '막 시작했다'와 '이미 이루었다'에 더 많이 응답함으로써 남자 청소년들은 학업을 끝내면 직업을 갖고 결혼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의식을 지니고 성인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추론

을 할 수 있었다. 연구대상 청소년들에게 개별적으로 질문한 결과에서도 상당수의 여자 청소년들은 자아탐색이나 정체감 탐색보다 외모 가꾸기를 더 중요시하였고 결혼이나 가족생활을 경시하는 경향을 나타내 남자 청소년들보다 성인기 준비가 늦어질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나 보다 정확한 성차의 원인은 후속적인 심층적 면접이 이루어져야만 분명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자의 예상대로 발달과업의 성공적 성취는 바람직한 성격특성과 연결되어 있었다. 즉 발달과업을 막 시작하거나 이미 이룬 청소년들이 아직 시작하지 못한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외향성과 호감성, 성실성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니고 있었다. Nurmi(1993)의 주장대로, 발달과업은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맥락이므로 맥락과의 상호작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청소년들은 청년기 발달과업을 효과적으로 성취함으로써 더 바람직한 성격특성을 지닐 수 있다는 맥락이다. 그러나 정서적 불안정성은 성차만 유의할 뿐 발달과업 성취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5요인 성격 특성 중 유일하게 환경이나 맥락의 영향을 적게 받는 안정적인 성격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발달과업의 성공적 성취는 높은 자기존중감과 행복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발달과업의 성공적 성취는 개인을 행복하게 하는 반면, 실패는 개인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주장한 Havighurst (1972)를 포함하는 여러 선행연구들(장휘숙, 2009; Brunstein 등, 1999; Pinquart 등, 2004; Schulenberg 등, 2004; Seiffge-Krenke & Gelhaar, 2007)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비록 이 연구는 개별적 발달과업의 성취 정도를 합산한 것으로써 발달적 진보의 전체적 지표에 기초하였으나 발달과업들 중에는 개인의 성격특성이

나 자기존중감 및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발달과업들이 있을 수 있다. 한 예로서 청년기 동안 '이성과 사귀기 시작한다'에서의 높은 발달상태는 더 높은 수준의 정신병리적 징후와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도 있으므로(Daley & Hammen, 2002),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개별적 발달과업과 개인적 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과거와 비교하여 연장된 청년기를 경험하는 한국의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발달과업 성취 정도를 평정하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발달과업의 성취가 청소년들의 개인적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욱이 발달과업의 성취여부는 성공적 적응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의 역할을 하므로 이 연구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진단하고 대처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장휘숙 (2008). 성인초기의 발달과업과 시작시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4), 109-126.
- 장휘숙 (2009). 성인초기의 발달과업과 행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1), 19-36.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 469-480.
- Barbaranelli, C., Caprara, G. V., Rabasca, A., & Pastorelli, C. (2003). A questionnaire for measuring the Big Five in late childhoo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 645-664.
- Brunstein, J. C., Schultheiss, O. C., & Maier, G. W. (1999). The pursuit of personal goals: A motivational approach to well-being and life adjustment. In J. Brandstätter, & R. M. Lerner (Eds.), *Action and self-development: Theory and research through the life span* (pp. 169-196). Thousand Oaks: Sage.
- Daley, S. E., & Hammen, C. (2002). Depressive symptoms and close relationships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Perspectives from dysphoric women, their best friends, and their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 129-141.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alambos, N. L., Barker, E. T., & Tilton-Weaver, L. C. (2003). Who gets caught at maturity gap? A study of pseudomature, immature, and mature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 253-263.
- Galambos, N. L., Turner, P. K., & Tilton-Weaver, L. C. (2005). Chronological and subjective age in emerging adulthood: The crossover effec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0*, 538-556.
- Gilligan, C. (1996). The centrality of relationship in human development: A puzzle, some evidence, and a theory. In G. G. Noam, & K. W. Fischer (Eds.), *Development and vulnerability in close relationships* (pp. 237-261). Mahwah, NJ: Lawrence Erlbaum.
- Graber, J. A., Brooks-Gunn, J., & Petersen, A. C. (1996). Adolescent transitions in context. In J. A. Graber, J. Brooks-Gunn, & A. C. Petersen (Eds.), *Transitions through adolescence: Interpersonal domains and context*. (pp. 369-383). Mahwah: Erlbaum.
- Harter, S. (1990). Processes underlying adolescent self-concept formation. In R. Montemayor, G. R. Adams, & T. P. Gullotta (Ed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 transitional period*. Newbury Park, CA: Sage, 205-239.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5th ed.). McKay, New York.
- Heckhausen, J. (Ed.). (2000). *Motivational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Developing motivation and motivating development*. Amsterdam: Elsevier.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137-155.
- Nurmi, J.-E. (1989). Adolescents' orientation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interests and plans, and related attributions and affects, in the life-span context. *Commentationes Scientiarum Socialium, 39*, Helsinki: The Finnish Society for Sciences and Letters.
- Nurmi, J.-E. (1991). How do adolescents see their future? A review of the development of future orientation and planning. *Developmental Review, 11*(1), 1-59.
- Nurmi, J.-E. (1993). Adolescent development in an age-graded context: The role of personal beliefs, goals, and strategies in the tackling of developmental tasks and standards.

-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6(2), 169-189.
- Pinquart, M., Silbereisen, R. K., & Wiesner, M. (2004). Changes in discrepancies between desired and present states of developmental tasks in adolescence: A 4-process mode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6), 467-477.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ulenberg, J. E., & Bryant, A. L., & O'Malley, P. M. (2004). Taking hold of some kind of life: How developmental tasks relate to tasks related to trajectories of well-being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 1119-1140.
- Seiffge-Krenke, I. (1998). Chronic disease and perceived developmental progressio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4, 1073-1084.
- Seiffge-Krenke, I., & Gelhaar, T. (2007). Does successful attainment of developmental tasks lead to happiness and success in later developmental tasks? A test of Havighurst's (1948) theses. *Journal of Adolescence*, 4(2), 1-20.
- Silbereisen, R., & Noack, P. (1990). Adolescents' orientation for development. In H. Bosma & S. Jackson (Eds.), *Coping and self-concept in adolescence*. Berlin: Springer, 112-124.
- Youniss, J., & Yates, M. (1997). *Community service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yout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차 원고 접수: 2010. 04. 07

수정 원고 접수: 2010. 05. 11

최종 게재 결정: 2010. 05. 12



# The Effects of Achievement of Developmental Tasks in Adolescence on 5-facto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elf-esteem and Happiness

Hwee-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many developmental tasks based on Havighurst's ones in adolescence were achieved and whether there was sex difference in the levels of achievement of developmental tasks with 515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lso it was examine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5-facto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elf-esteem and happiness according to the achievement level of developmental tasks. As 6 tasks among 17 developmental tasks had highest proportion in 'already achieved,' 8 tasks in 'just starting' and 3 tasks in 'not yet'. High school period was the beginning time for achievement of typical developmental tasks of adolescence. Interestingly male adolescents tended to be maturer than female counterparts in 4 tasks among 17 developmental tasks. Also it was found higher group in achievement levels of developmental tasks had higher extraversion,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openness to experience, self-esteem and happiness than lower group in achievement levels.

*Keywords: developmental tasks, 5-facto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elf-esteem, happiness*